

### 공동체 소식

#### 연중시기

-연중시기는 1년 주기의 교회 달력(전례력)에서 대림, 성탄, 사순, 부활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입니다. 전례를 따르는 모든 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연중 시기는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들에 박차를 가하는 때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침묵 속에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각 주일과 하루하루의 삶을 충만히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 삶 전체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영원한 봉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연중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교 활동과 가르침 등 공생활에 관한 복음을 읽으며, 사제는 삶의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본당 2020년 달력은 원하시는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 설 합동위령미사

-19일(일)은 설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지향은 알아보기 쉽게 써서 봉헌해 주십시오. 19일 주일미사로(매일미사 101쪽) 봉헌되며 "설 합동 위령미사 지향과 보편 지향 기도와 장엄강복만 설 미사(매일미사 125쪽) 양식"으로 봉헌됩니다.

#### 첫고해성사(First Confession)

-첫 영성체를 한 4명의 학생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첫고해를 하게됩니다.

-강윤후(그레고리오), 강미정(클라우디아), 김하울(루카), 차한나(가브리엘라)

#### 주일학교 봄학기 개학

-19일(일) 주일학교 봄학기 개학합니다.

-주일 오전10시 나자렛관(8901 Haskins St.)

#### 평협회

-19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의(chasuble)

-본당 제의 구입을 위한 donation 받습니다.

-마감 : 19일(일)

#### CLA 2차헌금

-26일(일): 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위한 모금 (Church in Latin America)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의 확대, 험악한 지형과 사제/선교사의 부족으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차헌금은 교리교육, 혼인과 가정 사목 그리고 사제 양성을 지원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차헌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의 신앙을 나눕시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 주님 봉헌 축일 초봉헌

-2월 2일(일) 오전 11시

-미사 시작 전 초 축복식이 있습니다. 일년간 제대에서 사용되는 초를 봉헌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할 초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정용 초 \$5입니다.

-초봉헌 문의 : 전례부

####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원서 : <http://uus.pauline.or.kr>

-문의 : 2020.1.31마감,02-944-0819~24, 010-5584-8945

####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2020학년도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원서접수 마감 : 2020.02.07(금)

-포스터 및 리플렛 참조

#### 교무금 계좌이체 안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구역/반모임 안내

-4구역2반 31일(금) 저녁7시 차호섭 요셉 가정

-2구역 미정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25	510	160	437
차 주	421	512	166	3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녜스	차호섭 요셉	조지연마리아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김정빈 바오로 김지안 요한	김가온 토마스 차한나 가브리엘라
차 주	김정훈 로베르토 정예찬 미카엘	강윤후 그레고리오 강미정 클라우디아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티노, 차상욱 펠릭스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강승호 아오스딩

#### 애찬 봉사자

금 주	설날 행사 2조팀 (6-10조)
차 주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kccatholic.org](http://www.kkc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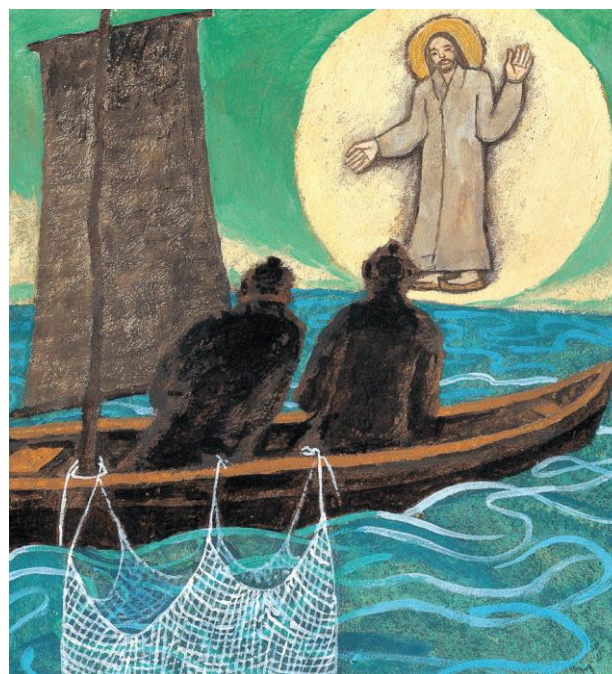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연중 제2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피며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그림 묵상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요한 1,32)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글: 김옥순 | 수녀

제 1 독 서 : 이사야, 49,3-6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화 답 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1,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 요한 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생명의 말씀

## 하느님의 어린양

어릴 적 여름성경학교 때 노래도 좀 하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악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사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이사악이 노래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짓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40년쯤 된 추억인데 이상하리만치 이 노래는 가사도 가락도 생생합니다. 참고로 저는 잘못도, 거짓말도 무수히 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진 어린 아들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7절) 하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8절) 부자(父子)는 번제를 바치러 산에 오르는 중입니다. 번제(燔祭)란 가죽 벗긴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치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데, 이로써 죄를 씻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레위 1장 참조). 어린 아들은 번제를 바치러 가는 아버지가 제물로 쓸 짐승을 잃은 걸까 조바심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아브라함도, 하느님도!) 번제물을 한시도 잃은 적 없습니다. 아들의 걱정에도 아버지는 무사히 제사를 지냈을까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분은 요한보다 "앞서신 분"이며(요한 1,30)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자(요한 1,33)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요한 1,34). 요한은 이토록 신비롭고 특별하고 은밀한 분,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상징적 표현으로 요약해 버립니다. 어째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날에 '어린양'은 이스라엘의 만아들을 대신해 죽었습니다(탈출 12장 참조). 요한은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말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위한 대속(代贖)의 희생 제물임을 밝힙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은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 종은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선택한 종으로, 민족들에게 공정을 펼칠 종이자 만민의 빛이 될 자입니다(이사 42장 참조). 동시에 그는 '고난 받을 종'입니다. 입 한 번 열지 않고 온갖 굴욕을 참아 받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죽어갈 종입니다(이사 53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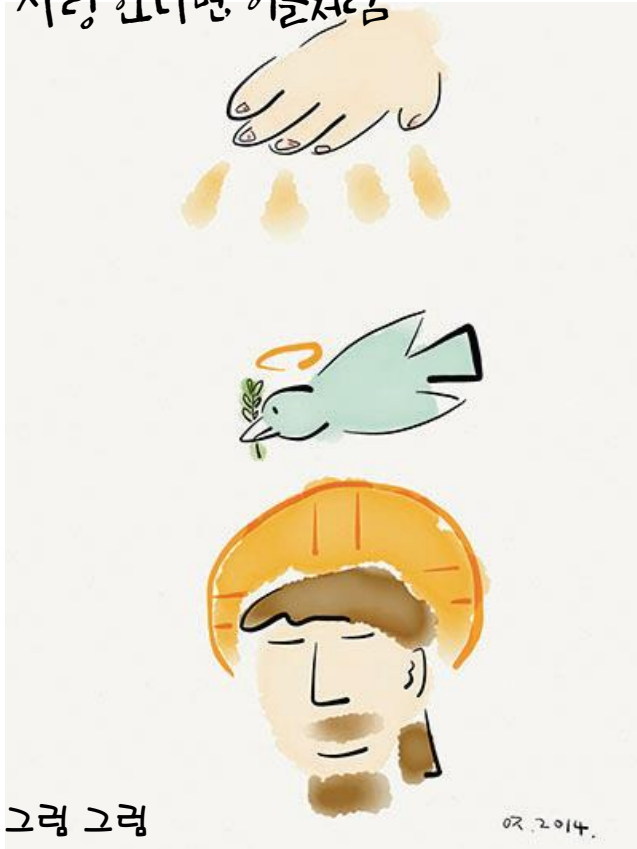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창세 22,8) 아브라함과 이사악을 돌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어린양'이 있

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그 어린양으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섭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골로 1,14)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사랑한다면 이질처럼



그렇 그렇

사랑하는데 한시도 떨어져 지내수 없게지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며  
어떠한 마음인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은 모를리가 없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요나서'로 연극하기

지난해 가을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대교구 문화학교에서 <'요나서'로 연극하기>라는 강좌를 들은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연극이나 구연동화로 한 번쯤은 접해 봤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1주일에 두세 번 '요나서'를 읽는 것이 기본 과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신부님의 해설 시간이 있고, 요나서를 읽고 각자 느낀점을 에세이나 연극 대본으로 써서 발표합니다. 최종적으로 수강생들이 함께 짚막한 낭독극이나 연극을 만들어 종강 미사에서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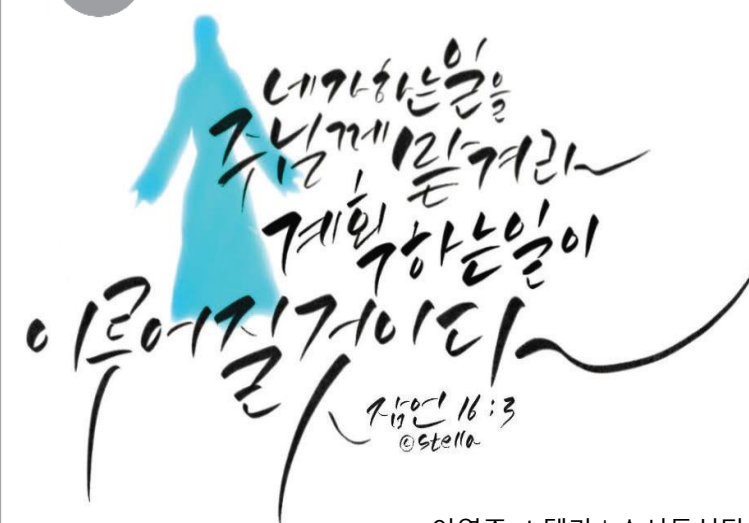
저는 이 수업을 통해 그동안 이야기 중심으로 피상적으로만 알던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히브리의 예언자 요나가 왜 하느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났다가 물고기 배 속에 갇히고 말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런 요나의 심경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반발했던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 이민족에게까지 차별 없이 베푸시려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느님이 행하시는 공평함의 간극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믿음을 멀리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악한 이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 또

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야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나서'로 연극하기> 수업은 하느님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님에겐 모든 피조물이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기에,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수없이 주시는지 못마땅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인들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을, 못되고 알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안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나 속좁고 편협했습니다. 우리 편, 네 편 갈라서 우리 편만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편견의 눈을 거두고, 편 가르기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요나서'로 연극하기> 수업을 받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문화학교에는 또 어떤 강좌들이 있을지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서울 회장

###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영주 스텔라 | 수서동성당